

꿈쩍 않던 국방부, 이전 기정사실화...내달 4개 기관 협의체 가동



⊕ 군부대 이전 논의 어디까지

“이해한다→ 공감한다 → 동의한다 →(진행 중인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전한다.”

무등산 정상에 주둔 중인 공군부대 이전 요구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광주시민들 바람을 이해한다”는 일관적인 답변에서 출발했다. 이후 공식 석상에서 되도록 군부대 이전에 관한 언급을 삼가다가, 최근 1년 새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이전 요구에 대해 지난해 12월 공감을 표시한 데 이어, 국방부가 부대 이전의 주체가 돼 자체 예산을 확보, 무등산 공군부대 이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국방부 “이전을 전제로 논의중”= 무등산 공군부대 이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광주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은 “무등산 군부대 이전 논의가 수십 년째 지속하고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최근 1년 새 이뤄졌다”고 밝혔다.

부대 이전 요구에 대해 꿈쩍도 않던 국방부가 최근 1년 새 군부대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전을

“국방부가 비용 마련 방안 연구”

방식·시기·비용 등 논의 본격화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전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였다. 광주시로부터 군부대 이전 건의를 접수한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국방부는 이전 방식에 대해 ‘기부대양어’만을 고집했다. 무등산 군부대 이전을 원하는 광주시가 예산을 부담하고 부대가 옮겨갈 자치단체까지 설득하겠다고 약속해 주면 그때야 부대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군부대 주둔지가 국방부 소유 토지가 아닌 공유지와 사유지로 드러나자 지난해 50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왔다는 점이 확인된 이후 부대 이전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국방부가 자체 예산을 수립해 부대 이전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를 상대로 1년 이상 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한 끝에 군부대 이전이 기정사실화됐다.

국방부는 최근 “주둔지가 100% 공유지, 사유지인 만큼 국방부가 이전 비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권 의원의 촉에 밝혔다.

◇이전 협의체 가동=논의 본격화= 무등산 공군

부대 이전 검토 협의체가 다음달 중 가동하면서 무등산 군부대 이전 논의는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의원,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광주시 등 4개 기관의 국장급으로 꾸러지는 협의체에서는 ▲부대 이전 예산 확보 방안(관련법 개정 등) ▲부대가 옮겨갈 자치단체 설득 방안 ▲부대 이전 시기 등이 논의된다.

지난 3월 등산객의 제보로 무등산 군부대 기름유출 사고가 드러난 만큼, 군부대 이전 전까지의 무등산 정상 환경 보호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권은희 의원은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광주시 등 협의체 구성원 모두 국립공원 정상에 주둔하고 있는 유일한 군부대인 만큼 부대 이전 전까지의 환경오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여기에 군부대가 지난 50년 주둔하면서 훼손된 무등산 정상 특유의 지질환경 대한 복원 계획 수립에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국방부가 추정하는 500억원(부지매입, 시설공사)의 예산 외에도, 부대가 옮겨갈 자치단체를 설득하고 지원하는데 추가로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에 관한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의원은 “작전수행에 제한이 없는 대체 후보지가 마련될 경우 무등산 방공포대를 이전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현재 입장”이라며 “무등산을 아끼는 지역민들의 열망을 담아 군부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수 경도가 부산(1곳)·인천(6곳)·진해(1곳)와 함께 정부의 복합리조트 조성 후보지 9곳에 포함되면서 12월 최종 대상지 선정까지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여수 경도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1차 관문 통과한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선정...남은 일정과 전망

인천서 1곳, 3개 지역서 1~2곳 유력 전남도 “할 수 있는 것 다 한다” 사활

여수 경도가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복합리조트 조성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향후 6개 지역이 선정된 인천은 물론 복합리조트 개발 의지를 밝힌 부산, 경남 진해와의 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사업추진 역량, 개발계획, 사업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관리 및 운영계획, 관광산업 발전기여도 등 정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현재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개발구상(RFC, Request For Concepts)을 제출한 3개 컨소시엄 간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2곳 내외를 복합리조트로 선정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어 일각에서는 이번 공모에서 6곳의 후보지를 가진 인천이 1곳을, 나머지 3곳이 1~2곳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11월 27일까지 제안서 접수

관광산업 비약 절호의 기회

◇후보지 9곳...사활 건 경쟁 나설 듯=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개발제안서(RFP, Request For Proposals) 공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9곳으로 제한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34개의 개발구상을 넘겨받은 문체부가 9곳이나 후보지로 선정할 것이다. 따라서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경쟁은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수 경도를 비롯해 경남 진해, 부산 북항은 1곳씩이며, 인천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 등 무려 6곳이다. 따라서 후보지 6곳을 가진 인천이 복합리조트 1곳을, 나머지 3개 지역이 1~2곳을 나눠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우선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개발제안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대비해 투자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서 작성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여수 경도에 개발구상을 제출한 컨소시엄 간 이합집산도 유도하기로 했다.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개발구상을 제출한 컨소시엄은 국내 신한투자금융·국제신탁·일성건설로 구성된 여수경도관광레저(주), 한국투자증권·동양건설·의료법인 무진의료재단의 (주)한국에너지산업, 해외 통화평강도가춘·삼일중공업·유원건설 집단·신디그룹 등이 참가한 (주)평가도가춘 등 3곳이다.

업자만이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는 비즈니스형과 위락형으로 유형이 구분되며, 카지노시설의 전용영업장은 총 건축면적의 5% 이내(1만5000㎡ 이하)로, 숙박시설 5성급 수준 호텔 1000실 이상, 소평시설 2만㎡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계획서와 함께 카지노운영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심사위원회가 청구자격을 심사한 뒤 투자계획서를 평가해 2개 내외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후 이 사업자에게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적합 통보가 주어진다.

평가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총점은 1000점이며, 사업추진역량(220점), 개발계획(190점), 사업추진계획(220점), 사업타당성(190점), 관리 및 운영계획(90점), 관광산업발전기여도(90점) 등이 평가항목이다. 개발구상을 제출한 업체가 제안서를 내면 가산점도 주어진다.

◇관광산업 비약 계기 될 듯...지역역량 집결해야=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관광(MICE)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복합리조트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제안’에 따르면 2010년 복합리조트 ‘마리나베이션즈’와 ‘리조트월드 드센토사’를 개장한 싱가포르의 경우 관광·오락 부문의 수입이 리조트 개장 이전인 2009년 약 2억100만 달러(싱가포르 화폐)에서 2013년 약 54억7100만 달러까지 약 27배 증가했다.

이미 2012년 세계엑스포를 개최한 여수에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중국인과 일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 관광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의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소평시설 부족, 항공 및 선박 등 교통시설 미흡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복합리조트 개발이 이를 타개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문체부가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 대비, 관광자원의 개발과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확보,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복합리조트 개발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만큼 여수에 복합리조트가 조성되면 광주와 전남북이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호남 관광산업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호남 전체가 전력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마세라티
광주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공식 오픈

한 세기를 이어온 이탈리아 하이퍼퍼포먼스 카 마세라티의 명성 그대로 마세라티만의 한 차원 높은 고객 서비스를 이제 광주에서 직접 경험하십시오.

MASERATI

마세라티 광주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문의전화: 062)376-8181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90(병촌동 975-32)